

미술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과 성찰

- 기독교학교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

유승민(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논문 초록

오늘날 한국의 교육이 입시라는 장벽 앞에서 경쟁과 성취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된 것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교육이 강조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기독교학교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기독교학교는 미술과 미술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해 왔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적 미술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대 미술과 미술교육의 문제점들을 연관시키고 기독교적 인간관의 회복을 위한 예술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미술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다음과 같이 성찰하였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창조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 창조성이란 미술관에 걸린 그림을 제작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관 지으면서 각자의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보편적인 소명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현대 미술의 영역이 타락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 철저하게 세속화되면서 이용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인 자연이 예술가의 행위를 통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예술과 문화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을 파악하고 미술의 용도와 확장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창조적인 존재라는 정체성과 이상화된 미술의 현실을 각성하는 것은 미술교육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가능성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학생과 교사, 공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기독교적 미술교육과정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소통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공간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 기독교학교에서 전체 교육과정의 균형을 맞추고 전인적 배움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미술교과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어서 인간 본성에 내재된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디어 주도형, 사회 참여, 공동체적 창작활동이 중심이 된 미술교육과정의 개발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시어: 미술교육, 현대 미술, 월터스토프, 창작 공간, 기독교학교

I. 서론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미술교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현대 사회에서 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관련해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술은 한편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칭송받으면서 현실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혁과 도전의 상징으로 대우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선전의 도구나 실용적 수단으로 취급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술을 포함한 예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나 정치, 사회적 이슈를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술이 상업적으로 평가되고 저급한 단계에서 이용될수록 수 세기 동안 인정된 명화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미술관의 경비는 삼엄해진다. 결국 세상과 미술 사이에 장벽이 세워지게 된다.

미술이 처한 이러한 현실은 학교 안에서 미술교과의 정체성과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육 현장에서 예술교과의 위치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거쳐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입시 위주의 교과 편성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을 다루는 교과들에 밀려 점차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지적인 상황이 아니다. 다중 지능의 창시자인 가드너(Gardner, 2006)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청소년을 연구하면서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예술과목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예 없애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까닭은 현대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산업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학교 안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길러지는 기회와 공간이 점차 감소되고, 학생들의 문제 발견 및 창의적 해결 능력은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게 되었다.

기독교학교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진다. 기독교학교도 현대 사상과 교육 철학의 영향 안에서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한다면 공교육과는 다른 기독교 교육과 창의성 교육, 즉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미술을 포함한 예술교과를 건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예술은 배움의 대상인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방과 소비지향적인 삶을 상상력과 창의성이 수반된 자기주도적인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성과 예술성이 조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기독교학교는 지식과 신앙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술과 문화의 영역을 책임질 젊은 그리스도인을 기르는 일에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II. 미술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1. 모든 사람은 예술가로 부름 받았다.

기독교적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표현을 위한 소재와 대상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술적인 활동과 내용은 심오하고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담아야 한다고 오해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나 아르누보의 대가 루이스 티파니(Louis Compart Tiffany)는 꽃이나 곤충 등의 자연물을 소재로 삼아 세심하게 관찰하며 대상을 재현하였다. 또한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움직이지 않는 자연과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시한 물건, 자신의 얼굴과 주변 사람들을 주로 그렸지만 그의 회화에는 현실에 대한 천착이 있다. 아르토(Artaud, 2003)의 표현대로 반 고흐는 삶의 가장 저속한 것들 속에서 신화를 연역할 줄 아는 예술가였던 것이다.¹⁾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예술의 주제로 다루기 위하여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는 쉐퍼(Schaeffer, 2002: 70-71)의 예술관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종교적' 물체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산, 나무, 새, 새의 노래 등과 같이 비종교적 피조 세계를 만드셨음을 상기시킨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다면 그것을 그리거나 소재로 삼아 글을 쓸 가치가 있고, 새를 만드셨다면 그림으로 그릴 가치가 있으며 하늘을 만드셨다면 하늘을 그려 볼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위대한 작품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창조 행위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과제에 대한 고민은 경험과 관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어떠한 예술이라도 단순한 관찰과 기록에만 치우치면 모방이 되고, 자의적인 해석이 지나치면 근본적인 실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카이퍼(Kuyper, 1996: 188)는 이 점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예술의 소명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파악해서 예술적 결과물을 재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 형식에서 아름다움의 질서를 발견하고, 이러한 지식에 의하여 부요함을 느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은 예술이 독립적이면서도 현실에 뿌리박은 나무가 되어 세상 곳곳에 침투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독교인들이 예술적 창작 행위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 예술의 영역을 종교적 상상력이 필요한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로 확장시켜준다.

피조 세계 안에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쉐퍼(Schaeffer, 2002: 41)는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창의성은 인간성의 고유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즉, 창조성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대부분 창조, 죄, 구원, 사랑,

1) 반 고흐에 대한 수많은 평가 중에서도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아르토의 글을 제시한 이유는, 그가 1947년, 파리에서 '반 고흐전'이 열린 후에 고흐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던 전문가들의 비평에 분노하며 고흐의 천재성을 밝히고 작품의 가치를 변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르토 자신도 정신병을 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흐의 그림 속에 보이는 광기의 고통과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의지를 산문시의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한편 고흐를 이해하는 여러 시각 중에 기독교적 접근이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목사인 아우웬을 두었다는 것만으로 고흐의 삶과 작품을 영성과 연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헨리 나우웬(Nouwens, H.)의 저서들과 에드워즈(Edwards, C)의 『하느님의 구두』를 살펴보면, 나우웬은 고흐를 가장 중요한 영적 안내자로 삼고 그의 집중력과 목상하는 마음, 세상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통찰력과 진지한 열망을 배우고자 하였다. 이렇게 반 고흐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삶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은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역사, 전쟁, 신화 등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회화와 문학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쉐퍼(Schaeffer, 2002: 75)는 이러한 순환에 대해 예술을 통해 묘사되는 기독교인 삶의 총체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기독교인의 삶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예술 작품은 없으며, 모든 기독교인은 각자의 인생에서 창의성의 재능을 발휘시키는 예술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기독교적 관점으로 미술교육을 조명하기’의 필요성과 의미를 찾고자 한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미술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은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창의적 표현과 공동체 감각을 확립하고 확실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된 미술

앞 장에서 미술의 성경적 의미와 미술교육의 기독교적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철학에 관한 논의가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린(Greene, 2000: 104)은 철학이 신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추구하고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특히 미술교육의 이론적인 틀과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타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철학적인 논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과학적 탐구와 학문의 확실한 결과만을 근거로 받아들이는 자연주의의 영향이 근현대 교육 사상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린(Greene, 2000: 96-97)에 의하면 지금도 현대교육이론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진보주의 이론은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진리와 가치의 개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진보주의를 주창한 듀이(Dewey)는 진리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즉 진리는 전적으로 상호작용적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론화하였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관 자체가 급격히 바뀌게 되었다. 현대 사상은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중립적인 상식이나 이성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모든 주장들을 해체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종교, 문화, 역사에 우열이 없고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은 유사 진리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각종 틀을 양산하였고, 이는 진리와 기존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렇듯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깊은 회의주의를 심화시킨 것은 신앙보다 이성에 근거를 두는 과학적 확실성이었다. 서구 사회를 선교사의 시각으로 진단한 뉴비긴(Newbigin, 2013: 48)은 아이러니하게도 근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산물인 과학이 그 자체조차 깊은 회의주의에 직면했다고 보았다. 그는 오늘날 과학은 권력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인식되지만 지혜의 길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근대 과학은 인간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기술은 근대와 근대화된 사회를 지배한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지혜, 곧 목적이 진리와 일치하는 지를 분별하는 힘이자 양자택일의 선택 가운데 옳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 속에 회의주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정리된 세계관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여러 세계관의 변형된 형태가 펼쳐지는 무대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수 세기 동안 신을 부정하고 인간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성적 정신을 가진 존재임을 주장했던 자연주의의 교묘하고 달콤한 목소리를

드러낸다. 이러한 자연주의의 전략을 간파한 사이어(Sire)의 비유²⁾는 매우 흥미롭다. 자연주의는 인간을 가치의 창조자이자 우주의 중심에 두었으나 기껏해야 인간 존재를 기계나 최고의 동물로 보는 인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확신, 실재에 대한 신뢰, 장래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는 실제적인 해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Sire가 지적한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주의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거미줄에 말려들게 한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Sire, 2007: 337)

이러한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영성에 대한 다원적인 양상을 불리했다. 확실한 지식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후 이제는 아예 확실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동양의 신비주의와 자연주의적 허무주의로 도피해간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구사회에서 뉴에이지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사이어(Sire, 2007: 280-281)는 뉴에이지 세계관의 개념적 상대주의 해석은 단순히 새로운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상징체계를 다른 상징체계로, 즉 실재에 대한 하나의 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해도 이런 식의 해석으로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

그러나 개념적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뉴에이지 세계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진 윤리관의 실종이다. 그들의 논리로는 개인의 자아를 강조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가치가 상이한 자아들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다룰 수가 없다. 뉴에이지 세계관의 또 다른 문제는 실제의 본성과 진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사이어(Sire, 2007: 292)에 의하면 뉴에이지 사상에는 큰 정신이나 고차원의 의식 안에 상응의 진리(Truth of Correspondence)라는 것이 없다고 보았다. 단지 내적 일관성의 형태만이 있고, 그러므로 어떤 이의 사상이나 경험에 대한 비판도 없다. 모든 체계가 동일하게 가치 있으므로 경험이라는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그리고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다. 사이어(Sire)는 우리가 결코 실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념의 논리적인 결론은 일종의 인식론적 허무주의라고 정의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세계관의 영향으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개인 취향의 영역으로 밀어버린 결과, 현대인들로 하여금 의존할 대상을 찾아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에서 미술을 포함한 예술의 영역은 숭배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귀의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제공해주었다. 월터스토프(Wolterstorff, 2010)는 예술이 심미적 감상에서 종교적 숭배로 전환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예술의 실천적 본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의 연구는 예술이 구속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종교와 경쟁하는 현실을 이렇게 정리한다.

예술품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취한 신의 대리자가 되었다. 심미적 감상은 종교적 예배의 자리를 취하고, 예술가는 우리가 몰입해서 감상하는 가운데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경험하는 그런 사물을 만들어

2) 제임스 사이어는 그의 저서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자연주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연주의의 얼굴에서 교만스럽게 웃는 가면을 벗겨낸다. 가면 뒤의 얼굴은 끊임없이 변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거기에는 인간 대중의 폐거리 심성을 맹렬히 비난하는 니체의 고뇌, 초인이 되고자 하는 니체의 황홀한 기쁨, 강렬한 성적 체험을 지향하는 푸코의 결눈질, 자기의 담론까지 포함한 모든 담론을 해체하는 데리다의 익살스런 웃음, 토대가 없는 연대성을 지지하는 로티의 입술 들레의 아이러니컬한 모양새가 담겨 있다.’

내기 위해 창조의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이 되었다. 예술가는 신을 만들어 내는 이들이 되고, 우리는 그들을 숭배하는 자가 된 것이다.(Wolterstorff, 2010: 101)

예술가의 지위가 수공업자에서 창조자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조형 예술과 세계 창조를 유사한 것으로 보는 생각은 르네상스만의 특징이 아니었다. 미술사학자 크리거(Krieger, 2010: 47-48)에 의하면 고대와 중세에도 신의 창조 행위가 ‘수공업자의 행위’와 비교될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했다. 여기서 새로우면서도 중요한 점은 비교 대상이 진도되었다는 것이다. 즉 예술가의 제작 행위가 신의 창조와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 조각의 새로운 장을 연 로댕(Rodin, 2010: 112)은 창조자로서 예술가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종교적이라 지칭하며 참다운 예술가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며,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진실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댕(Rodin)의 예술론은 ‘자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하나의 신으로 숭배한 것이다. 크리거(Krieger, 2010: 194)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생각하는 사람>³⁾이 창조자인 예술가를, 창조적인 인간 전반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어느 비평가도 지옥의 문 위에 앉아서 상념에 빠진 사람이 인간의 타락과 심판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인물상은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예술가에 부과되는 구원자적 역할을 맡았던 대표적인 작가로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가 있다.⁴⁾ 미술가의 창조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크리거(Krieger, 2010: 159-160)는 보이스(Beuys)가 정신적인 것, 정치적인 것, 생활세계와 연관된 것을 비슷한 비율로 포함하는 예술적 메시아주의를 구체화시켰다고 보았다. 보이스(Beuys)는 현대에서 예술가가 스스로 부과하는 모든 역할, 즉 교사, 정치가, 예언자, 사제, 연금술사, 무당, 치유자와 구원자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내세운 과도한 요구로 인해 격렬한 반대자들을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투쟁적인 추종자도 얻게 되었다. 물론 예술가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선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작가가 자아실현과 영적 구원을 목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술과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 그것을 받아들인 예술가들의 태도이다. 예술은 숭배자들에게 의해서 하나의 우주를 형성해 갔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도취되어 내려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급화 되어가는 예술이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월터스토프(Wolterstorff)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술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술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고상한 방식으로, 잃

3)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Rodin)의 청동조각 작품으로 <지옥의 문> 상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제 1장에서 영감을 받아 ‘지옥의 문’ 전체를 지배할 인물로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각상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1888년에 <지옥의 문>에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 로댕에 의해 실물 크기보다 더 크게 제작되었고, 이후 기념비적인 조각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지옥의 문>에서 지니던 본래의 종교적인 맥락에서 벗어남으로써, 관람자에게 생각하는 행위에 관한 다양한 맥락에서 보편적인 해석을 받게 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4)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 독일 현대미술작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스 공군의 부조종사로 북부 중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은 후 사머니즘적 치료법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때의 실존적 경험을 바탕으로 펠트와 기름덩어리를 모티프로 전위적인 조형작품과 퍼포먼스를 발표하였다.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행동적인 예술관과 자유지향으로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버린 질서의 회복 같은 주제를 이야기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예술 활동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Wolterstorff, 2014: 327-328)

월터스토르프(Wolterstorff, 2014: 328-329)는 이러한 성찰을 교육적 함의로 연결시킨다. 그것은 고급 예술이 예술의 여러 양식과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삶과 예술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이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예술과 학문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문화와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을 갖추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시도에 반발하여 내부와 외부의 장벽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예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나 문제의식이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모든 과정이 학교 내에서 살림을 실천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술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교육활동이 명백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저변에 있는 거대한 철학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술의 목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미술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 작업이다. 나이트(Knight, 1987: 23)가 교육 철학과 기독교교육을 연결시키면서 제시한 목적이 미술교육을 위한 철학적 고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교육 철학 공부는 교육자가 교육의 기본 문제들을 보다 잘 알게 도우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해결책들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며, 삶과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보다 명백하게 사색하도록 도와주며,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견해와 실제적으로 보다 넓은 세계의 맥락에 연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내를 해준다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을 빌려서 현대 미술과 미술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을 파악하는 것과 그러한 사상을 실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작업이다. 오히려 다원화된 물줄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대의 유행을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성과 두려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기독교적 미술교육의 핵심: 학생, 교사, 그리고 공간

이번 장에서는 기독교적 미술교육과정을 실제로 개발하기 위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하고 실제적인 수업의 구성 요소인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미술수업에서 발생하는 배움의 공간과 작업의 공간의 연결점을 찾아보고 미술교과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수반될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는 주된 목표는 학생과의 소통이다. 예술적 경험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감정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단편들을 듣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공동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동역자의 자리에서 학생들을 맞이해야 한다. 결국 근현대 교육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오던 표현력 위주의 미술수업을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의 예술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의 인적 구성, 즉 수업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특성과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김현섭, 2013: 102). 다시 말해서 학생과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 즉 교육철

학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숙경(2015)은 교육이 교사의 만족이나 교사의 신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학습자를 위한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교사의 경험이나 몇 가지 사례에 대한 교사의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학생들을 너무 쉽게 유형화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대신에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지식들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학습자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 학생에 대한 관점

기독교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있다. 특히 미술교육은 사고형에 치우친 교육과정이 감각, 직관, 감정이 결합된 지성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준다. 해리스(Harris, 2003: 195)는 자신의 저서에서 감정과 지성활동의 통합을 실천한 교사를 소개하면서 미술의 문제가 삶의 구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녀가 한 미술교사의 교육관과 교육방법을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술교사에게 있어서 미술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기독교교육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필요를 찾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이숙경(2015: 155)은 학습자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교육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인격체로서 학습자들을 이해하면서 돕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 이해와 사회과학적 이해로 나누어서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본질적인 측면과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 중에서 학습자들의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방식은 미술 작업에 있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학생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을 세속적 교육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차이점이며, 학생들이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은 타락한 죄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간성의 왜곡과 지나친 자아에 대한 관심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학교가 지식 전달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학생들의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한 경쟁과 비교의식, 열등감과 같은 문제를 외면한다면 개인의 무능을 넘어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참된 인간의 속성들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사고로 판단될 수 있다. 피어시(Pearcey, 2015: 78-79)에 의하면 1930년대까지 '진리의 통일성'을 추구하던 미국의 대학들은 과학만이 참된 지식을 구성한다는 생각으로 무장하면서 신학과 윤리학을 학문 활동에 명백히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유신론적 세계관이 개인의 취향이나 편견에 불과하며 이러한 생각은 객관적인 연구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에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중립적 판단이나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학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경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학습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를 인식하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자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이숙경, 2015: 163-164). 또한 학생들은 가정과 사회의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며, 사회적으로 약속된 권리와 의무를 익혀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장점과 은사와 재능을 가진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명령들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만 한다. 이러한 전제는 학생들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참여자이다. 앞에서 소개한 해리스(Harris, 2003: 196)는 미학과 지성의 결합을 인간 활동의 특징으로 보는 듀이(Dewey)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를 교실에서 실천한 미술교사 툴리(Tooly)의 교육관을 연구하였다. 툴리(Tooly)는 미술이라는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 표현된다고 보았다. 특히 작품이나 어떤 미적인 개체를 만드는 것은 감정과 관련 있는 것이며 감정이 형태를 취하도록 허락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가 교사로서 이러한 사고 과정에 기반으로 삼는 것은 인간관계이며 학생에 대해 갖게 되는 기본 태도는 학생들을 동료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서 각 사람의 독특한 내적 생명이 경외와 존중, 그리고 궁극적 진지함으로 대접받는 기본적인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학생에게 존재론적 소명이 있음을 알고 이를 존중하는 교사의 인격적 실재로 이어진다.

툴리(Tooly)의 교육관에 의하면 미술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미술에 관한 학습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감정과 인간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술수업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재료를 사용하고 기법을 익히면서 동료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는 자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은 교사는 성실하고 꾸준히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은 잘 구성된 미술수업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또한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사유와 직관, 창작 등 미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툴리(Tooly)의 교육관과 듀이(Dewey)의 진보주의적 관점은 미술교육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돌파구가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경험과 능력을 배려하여 미학과 지성의 결합을 인간 활동의 특징으로 보는 듀이(Dewey)의 관점은 미적 가르침이 교육 전반에 걸쳐 타당한 교육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과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전통적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듀이(Dewey)의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 듀이(Dewey)는 프로이트(Freud)의 심리학과 루소(Rousseau)의 자연주의와 맞물려 '절대적 존재'는 없으며 인간에게 내재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을 역설하였다. 물론 진보주의 교육철학이 학습자를 능동적 참여자로 보고 학생들의 흥미, 호기심, 관심, 욕구, 경험 등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현대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학생들을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기독교학교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동체성이라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보주의적 사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2.) 교사에 대한 관점

교사가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과 문화를 바라보고 이를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지식 전수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인격적인 성숙까지 갖추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교과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가르침의 기예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반 다이크(Van Dyk)가 주장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교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독교적인 교수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과를 연구하고 수업을 개발하며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3박자를 모두 갖춘 교사상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경 본문과 팔머(Palmer)의 글을 통해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갈등과 긴장을 감수하며 학생과 소통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학생의 배움을 기다리고 존중하는 교사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인 반 다이크(Van Dyk)는 그의 저서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은유로 표현하는 창의적인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는 특히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장인과 안내자의 은유를 사용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내는 건전한 지식에 기초하고 적절한 개인적 직관이 좌우하는 장인 정신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지도를 가지고 자신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방법으로 전체 여정, 통과해야 할 지역, 학습해야 할 다양한 기술과 내용을 펼쳐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 학생들을 인도한다(Van Dyk, 2003: 116-117). 이러한 은유는 교단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교사는 장인의 자세로 수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안내자의 관점으로 여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얻는 또 다른 유익은 교사들에게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교사 자신과 학생을 이해하고 공동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교사가 학생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경쟁과 성공에만 초점을 두었던 결과로 인해 학교 안에 만들어진 적대적인 환경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팔머(Palmer)는 교사가 당면한 두려움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성화 가르침을 이따금 접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교사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마비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청소년의 비웃음, 자신의 무지의 노출, 세대 간의 갈등, 통제력의 상실 등을 두려워한다. 이런 교사들이 사용하는 권위주의적인 방법,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과목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조장하는 방법은 그런 두려움을 견제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다. 이런 교사들이 자신과 자신의 두려움을 더 잘 안다면, 그 가르침이 그들의 자아인식에서 나와 배우는 경험을 다시 한 번 생생한 만남으로 만들 것이다.(Palmer, 2013: 133)

이제 기독교 교사로서 장인과 안내자의 은유에서 영감을 얻어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기다림과 존중의 자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팔머(Palmer)는 그의 저서에서 장자의 시, '나무조각가'를 소개하였는데, 이 시는 열심히 일하고 창조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을 묘사함으로써 절제되고 해방된 행동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 시를 통해 나무조각가의 내면의 진실과 타자(대상)의 내면의 진실 간의 만남을 강조한다. 나무조각가는 자기의 작업 계획을 나무에 강요하지 않고, 대상

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주력한다.(Palmer, 2013: 132)

이 이야기를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용한다면, 교사가 학생을 교정하여 일정한 지식을 넣어주려는 시도 이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모양을 기대한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도 없이 현실의 허기와 갈증을 채우기 위해 상상력이 부재한 교육만 해 온 것은 아닌지 교사의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예술을 가르칠 때 열린 마음으로 갈등과 긴장을 끌어안는 교사의 자세가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 중심과 배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실 안에서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긴장이 일어난 상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을 종속시키려 하거나 듣기는 하되 반응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팔머(Palmer, 2000: 225)는 교사가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고전적인 영적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겸손과 믿음은 교사로 하여금 들을 때와 말할 때, 받아들이고 때와 거절할 때, 공동체적 요구를 따를 때와 공동체적 요구가 따라오도록 만들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주장은 교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교사는 항상 실수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겸손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후에 자신에게도 동료교사와 학생에게도 늘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수용할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일정한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 갈등과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는 미술수업처럼 상상력과 독창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더욱 요구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팔머(Palmer)의 정치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팔머(Palmer, 2012: 208-209)는 학교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병리를 방지하도록 마음의 습관을 가르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잔인함과 창의성의 역사, 환경 파괴와 복원, 절망과 희망의 문학 등 모든 분야의 사실이 긴장을 유발하는 질문들을 제기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배운다. 그 긴장을 끌어안음으로써 그들은 더 훌륭한 시민과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속에서 공적인 갈등은 불가피하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공동체 안에서 창의성을 키워준다. 교사는 비판적인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고 권위와 연결 짓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유교 문화의 의식이 뿌리 깊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훈련이 더욱 절실하다. 역사학자인 글래드웰(Gladwell, 2009)은 항공기 사고를 예로 들어 뒷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이유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완곡어법’이 한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하고 있다.⁵⁾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수평적인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을 교사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학교와 수업 안에서 공동체의 문화로 정착될 수가 없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과 문화를 교육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교사가 먼저 용기를 가지고

5) 말콤 글래드웰은 1997년, 뽕에서 일어난 대한항공의 항공기 사고를 위계적인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존재하던 엄격한 서열과 완곡어법으로 인해 기상 악화와 공항의 유도 장치 오작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식을 내면화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기는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서 갈등과 긴장을 풀어안는 법을 배움으로써 수업을 혁신하고 기독교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미술교사의 역할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애굽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 특히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사명과 역할을 상세하게 제정하셨다.⁶⁾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막 공사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예술 창작 과정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미술교사의 역할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최초의 성막 공사 과정에는 예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 쉐퍼(Schaeffer, 2002: 18)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를 관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먼저, 예술은 창조적이다. 그러나 또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쉐퍼(Schaeffer)의 주장처럼 브살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변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성막 건축의 정확한 기준과 미적인 완성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방법과 기교를 총동원하고, 수많은 드로잉을 하면서 연구를 거듭했을 것이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브살렐은 성막을 짓는 명예로운 사업을 맡기까지 길고 긴 도제 기간을 거치며 수련했을 것이다. 그가 경험을 쌓은 곳이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짓는 이집트 어느 지역의 공사 현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시고 지혜로운 기능공들을 보내주셔서 브살렐과 동역하게 하셨다.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커다란 작업실은 성막에 쓰일 각종 기구를 만드는 공장이 되며, 가르침과 배움의 교실이 되고, 새로운 기법과 표현을 고안하는 연구실이 되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고대로부터 공동체성 및 공간 개념은 예술 작업을 완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독교세계관을 통합하여 미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는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업 설계와 가르침, 연구는 미술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교사의 사역을 온전히 성막 건축이라는 과업에 비교해서 설명하기에는 둘 사이의 간격이 꽤 넓어 보인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할 때 만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사가 미술교과를 성경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어도 반복적인 업무와 처리해야 할 사소한 일들 때문에 진전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실험할 때 단기적인 성공이 보장되지 않거나 물질적, 시간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6) 출애굽기 35장 30절-35절(새번역).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내어, 그 생각해 낸 것을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연구에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교사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전과 일의 괴리감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의 일은 뭔가 좀 다르고 거창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켈러(Keller)가 제안한대로 일과 영성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는 톨킨(J. R. R. Tolkien)의 단편 ‘니글의 이파리’⁷⁾를 소개하면서 모두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성취하기를 꿈꾸지만 그걸 온전히 이를 힘이 없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톨킨(Tolkien)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현재의 삶 너머에 참다운 실재가 있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일 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려준다(Keller, 2013: 34-35). 톨킨(Tolkien)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평생을 씨름하면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 하찮은 일을 감당한 것처럼 기독교 교사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비록 현재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나무를 기대하며 나뭇잎 한두 장을 성실히 그려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낼 다짐과 함께 기독교 교사는 공적인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편파적인 기준이나 일방적인 잣대로 교과 지식이나 전문가를 재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경계에 대해 볼프(Volf, 2014: 184)는 현실적 문제와 대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볼프(Volf)가 종교적 목소리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바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의견을 배제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가 이 세상에 보여준 폭력적 유산은 명백한 것이지만 이로 인한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대화의 단절로 인한 무관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오히려 그는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종교적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소리를 내는 것이며, 이는 두 가지 근본적인 신념을 포함한다고 역설한다. 즉 하나님은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종교적 정체성은 통과할 수 있는 경계로 둘러싸여 있음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소리와 또 다른 목소리가 함께 울려 나올 때 공명이 되어 울리기도 하고 선한 쟁론이 일어나기도 한다(Volf, 2014: 188). 이렇게 기독교 교사가 자신의 소리에 확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결점을 들춰내서 논쟁에 이기는 방법을 외면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융합과 이해에 도달하려는 방식이 기독교적 진리를 실천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볼프(Volf)가 제안하는 공적 신앙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을 그린(Greene)의 교육 사상에 접목함으로써 기독교 교사의 정체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볼프(Volf)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공적 장소인 광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린(Greene)의 견해대로 학생들을 만나야 할 기독교 교사가 자기 지식의 근원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7) ‘니글의 이파리(Leaf by Niggle)’의 주인공인 니글은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하여 멀리 숲을 배경으로 한 거대한 나무를 그리기 원했던 화가이다. 니글은 나뭇잎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지만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된다. 니글이 떠나고 난 뒤 그가 남긴 이파리 한 장은 마을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점차 잊혀져갔다. 하지만 니글은 새로 도착한 나라에서 자신이 꿈꾸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실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웃과 함께 나무와 숲을 더욱 아름답게 일구게 된다.(위키피디아)

점에 대입하면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에야 우리는 이웃(학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Greene, 2010: 310). 이렇게 시작 된 관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체험한다. 이렇게 기독교 교사는 학교라는 광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목소리를 외쳐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회심과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공적 신앙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포함한다. 이 사명은 기독교 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축복이다.

(3) 공간에 대한 관점

수업이 진행되는 모든 곳은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학교에서 교육 현장을 언급한다면 일반적으로 교실,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떠올릴 것이다. 교실 환경의 물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인다면 교실 설비, 교육 기자재, 최첨단 학습 도구 등 교육공학적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실의 구성원에 시선을 돌린다면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려는 학생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 공간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떠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는 어떠해야 하는가? 반 다이크(Van Dyk, 2003: 156-157)는 기독교적 가르침은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았다. 교실 활동은 고립되고 독립적이며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좀 더 큰 망으로 연결된 상호 관계적인 전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망은 교실과 학교, 학교 밖 주위 환경을 뜻한다.

이와 같이 반 다이크(Van Dyk)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가져야 할 관심의 영역을 교실과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로 확장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교실 주변에 성을 쌓고 외부를 경계하는 교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팔머(Palmer, 2000: 160)는 이를 배움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규정하며, 교사가 숨을 수 있는 장벽을 치우고 배움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기독교학교가 지향해야 할 미술수업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미술에 관련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의 미술교사가 작업 공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전에 맞닥뜨리는 장벽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모든 교과 지식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이에서 비롯된 교육공간의 폐쇄적인 운영이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모든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로 인해 초기 기독교교육 운동에서 벌어졌던 교과 지식과 성경 말씀의 기계적 접근이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공간은 여전히 닫혀있고, 그 경계는 모호하며 적대적인 관계에 노출되어 있다. 시선을 교실로 돌려보면 교사는 담당하는 교과 지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학(길게는 대학원)을 마치고 교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과 지식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오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막상 교사로 임용이 돼서 교단에 서게 되면 단원과 차시마다 교육목

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도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몫이다. 기독교 학교의 교사는 여기에 더해 교과와 성경적 재구성이라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학급운영, 생활지도, 훈육, 행정 등 다양한 교사의 업무는 시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결국 이를 조율하지 못하는 교사는 가장 중요한 수업 연구에 소홀하게 되고, 교실을 두려움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도 초청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경계의 모호함과 적대적인 관계는 현대 학교 교육의 비뚤어진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학교 공동체의 경계는 개인적 교육철학을 세우지 못하고 직업인으로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미디어에 의해 획득된 얇은 지식을 가지고 소비와 모방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 교육과 양육을 혼동하는 학부모에 의해서 수시로 흔들린다. 지금도 수많은 교실에서 서로 협력하고 환대해야 할 구성원들이 반목하고 공격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공공교육의 현실이라고 치부하면서 외면해도 되는가? 기독교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학교도 동일하게 교사의 두려움과 공간의 폐쇄성, 모호한 경계, 구성원 간에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도 타락의 영향 가운데 있으며,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확립과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육이 처한 공통적인 위기에 대하여 팔머(Palmer)는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인간의 영적 욕구를 무시하는 현대 교육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며, 가르침을 영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킨다. 그는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가르침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Palmer, 2000: 157).” 그의 정의는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마음과 정신의 내적 공간을 포함한다. 진리를 통찰하고 지식을 탐구하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교감을 나누고 협력하는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이제는 ‘어떻게 미술수업의 현상이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팔머(Palmer, 2000: 160-165)는 배움의 공간에는 세 가지 주된 특징, 즉 세 가지 본질적인 차원이 있으며, 그것은 개방성, 경계 그리고 환대의 분위기라고 규정하였다. 개방성은 공간이 갖는 상식적 의미로 무지에 대한 두려움을 진리를 향한 용기로 바꾸고, 진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우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의 의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다. 환대란 갈등과 새로운 생각들이 개방적이고 주의 깊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말한다.

미술 수업이나 프로젝트 활동에서 창작 작업이 진행될 때 팔머(Palmer)가 제시한대로 개방성을 시도하고 경계를 세우면서 환대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은 공동체적 작업과 공간 개념을 중요시하는 미술 교사에게 특별한 영감을 제공한다. 물론 공동체적 작업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들이 가르침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갖는 독특성이 있을 것이나 이는 앞장에서 이미 고찰한 관점들을 참고하면 되겠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관계는 이후 교육과정의 실제적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공간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미술의 시각에서 보면 특정 공간에 입체조형작품이 설치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공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시장에 걸린 회화나 사진은 작품 안에 담긴 시각적 정보를 통해 관찰, 해석, 이해의 과정을 촉진시키지만 특정된 공간에 설치되는 입체조형물이나 개념미술작품은 공간과 연

결되어 맥락을 가지게 된다.⁸⁾ 따라서 작품 기획 단계에서 작품이 설치되거나 전시될 공간을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이 스스로 만들어낼 공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에 대한 미술적 개념이 배움의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완성된 작품과 그 과정에서 창조된 공간이 제작에 참여한 학생이나 이를 감상하는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도 질적 연구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론적 탐구와 교사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예술적 영역으로 다뤄지던 창작 공간이 어떤 관점을 통해서 배움의 공간으로 의미가 전환되었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먼저 배움의 공간을 조명해보자. 공동작품 제작과정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탐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에 용이하다. 팔머(Palmer)의 표현대로 학생과 교사와 주제 사이에 서로 만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창조되는 것이다.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작업장이라는 열린 공간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손을 모아 도구와 재료를 다루며,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을 나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만들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눈을 맞추고 주제를 명료하게 다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가끔씩 학생들은 관심을 보이는 구경꾼들에게 작품의 의도와 방향을 설명한다.

이러한 지점들은 반 다이크(Van Dyk, 2003: 171)가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으로 제안하는 협력 학습과 맞닿게 된다. 그가 제시하는 협력 학습은 학생들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며, 축하하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장소이다. 비록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인내심이 요구되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가 효과적인 교수-학습 상황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학생들은 교사의 직접적인 강의를 통해서 배운 지식과 효율적으로 통제된 과정 안에서 제작한 개인 작품보다 공동체적 창작 공간 안에서 훨씬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 그것은 바로 책임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와 배움의 공간을 경험한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한계와 실태를 살펴보고, 미술의 의미와 교육적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현대 교육의 교육과정 안에서 미술교과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상상력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미술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과학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미술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기르고, 생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익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현대 사회의 흐름과 현상을 무시하고 표현과 장식 위주의 실기 수업과 작가와 미술 사조를 암기하는 감상 위주의 이론 수업으로만 미술교육과정을 구성한다면

8) 프레데릭 J. 키슬러(Frederick J. Kiesler 1890-1965 건축가, 화가, 조각가)는 “회화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독립된 전체일 수 없다. 작품을 에워싼 환경도 그들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는 주위를 호흡하여, 실내와 옥외를 포함하는 환경 전체의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자연물이든 예술작품이든 그 자체가 환경으로 인식될 때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야마구치, 2000: 37)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외면을, 장기적으로는 미술교과가 도태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술교과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결국 기독교적 미술교육의 목적과 의미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 철학과 이론을 분별하여 성경적으로 재구성하는 회복의 과정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양한 철학과 이론의 장점들을 비판 없이 도입한다면 교육과정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대교육철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교육철학이론을 세운다면 그 편협성 때문에 현대사회의 인간상과 문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다. 각 교육철학 이론들은 인간, 교육, 사회 문제에 대한 일면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이 분명하게 확립된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철학 이론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하여 성경적 관점에 맞는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경적인 전제에서 시작한다면 기독교적인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대의 교육과정 이론부터 최신 교육 이론에 이르기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성경적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가?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더욱 실제적인 단계에서 연구와 적용이 동시에 요구된다. 교사 각자가 미술에 대한 이해와 교육철학을 정립한 후에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세속적인 미적 기준이 학생들의 머리에 단순하게 입력되거나 피조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기계적으로 숙련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계에서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교육방법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과학(공학)의 사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이 지식의 본질과 그 너머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 다이크(Van Dyk)가 가르침을 기예로 보고, 교사를 장인과 안내자의 예를 들어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기독교적 가르침이 실제적인 교육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려는 창의적인 시도에 용기를 얻어, '미술 교사는 예술가'라는 은유를 제안해본다. 물론 이런 시도가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예술가의 전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예술은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도 아니다. 미술을 포함한 예술이라는 분야는 땅을 책임 있게 정복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책임 있게 섬기고 섬겨짐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현실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고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술은 창조 세계의 살롬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다. 성경적 예술교육에 대한 고민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종으로서 예술가의 역할은, 학교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영역부터 회복시켜야 하는 미술교사의 역할과 겹쳐진다.

그렇다면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교사는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을 기다리고 존중하며, 갈등과 긴장을 끌어안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 제대로 된 여정을 걸어가는 교사는 성령에 감동하여 가르칠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학생에 대해 세심한 관찰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나아가서 교사와 학생은 배움의 과정(작품의 제작 의도와 작업 과정에 대한 소통, 도구의 기능과 표현 기법 전수, 감상과 적용-실천)에 참여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미적 가치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학생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수행함으로써 참된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학교에서 미술교육의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이다. 청소년은 공동체에 속하려는 경향도 강하지만 사회적 문제와 환경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대화가 방송 매체와 미디어에 관련된 주제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정한 주제가 주어지면 진지한 탐색과 고민을 통해 논리적인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비록 학생들이 미디어에 의존해서 정보를 얻는 경향은 높아졌으나 일정한 독서와 학습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체계와 정보를 탐색, 분별, 편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담론과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미술교과의 역할은 이러한 학생들의 자질과 잠재성이 계발되고 발휘되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미술교육을 회복시킬 교사와 학습자의 책임과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예술에 대한 월터스토프(Wolterstorff)의 견해를 참고하여 기독교적 미술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예술 작품들이 아무 기능도 없는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도구이자 대상이라는 것이다. 월터스토프(Wolterstorff)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성격 형성을 위해서 기독교학교에서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 것처럼 예술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기독교적 미술교육이 단순히 창의적인 미술수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현섭 (2013). 『수업을 바꾸다』. 경기: 한국협동학습센터.
- 이숙경 (2015). 『신앙과 기독교교육』. 서울: 그리심.
- 山口勝弘 (1992). 『環境藝術家キースラー』. 김명환 편역 (2000). 『공간연출디자인의 원류』. 경기: 미술문화사.
- Gardner, H. & Davis, K. (2014). *The App Generation: How Today's Youth Navigate Identity, Intimacy, and Imagination in a Digital World*. 이수경 역 (2014). 『앱 제너레이션』. 서울: 와이즈베리.
- Greene, A. E. (2003).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 (2009).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 Gladwell, M. (2008). *Outliers: The Story of Success*. 노정태 역 (2009). 『아웃라이어』. 경기: 김영사.
- Harris, M. (1998). *Teaching & Religious Imagination*. 김도일 역 (2003).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Baal-Teshuva, J. (2008). *Louis Comfort Tiffany*. Köln: Taschen.
- Keller, T. (2012). *Every Good Endeavor: Connecting Your Work to God's Work*. 최중훈 역 (2013). 『일과 영성』. 서울: 두란노.

- Knight, G. R. (1980). *Philosoph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in Christian Perspective*. 박영철 역 (2005). 『철학과 기독교교육』.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 Kuyper, A. (1987). *Lectures on Calvinism*. 김기찬 역 (1996). 『칼빈주의 강연』.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Newbigin, L. (1995). *Proper Confidence : Faith, Doubt, and Certainty in Christian Discipleship*. 박삼중 역 (2013). 『타당한 확신』. 서울: SFC.
- Rodin, A. (1914). *Les Cathédrale de France*. 김문수 편역 (2010). 『로댕의 예술론』. 서울: 돌출새김.
- Sire, J. W. (2004). *The Universe Next Door : A Basic Worldview Catalog*. 김현수 역 (2007).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Schaeffer, F. A. (2006). *Art & the Bible*. 김진선 역 (2013). 『예술과 기독교(예술과 성경)』. 서울: Ivp.
- Krieger, V. (2007). *Was ist ein Künstler*. 조이한·김정근 역 (2010). 『예술가란 무엇인가』. 서울: 휴머니스트.
- Pearcey, N. (2010). *Saving da Vinci*. 홍종락 역 (2015). 『세이빙 다빈치』. 서울: 복 있는 사람.
- Palmer, P. J. (1990). *The Active Life: A Spirituality of Work, Creativity, and Caring*. 홍병룡 역 (2013). 『일과 창조의 영성』. 서울: 아바서원.
- _____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2000).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_____ (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김찬호 역 (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경기: 글항아리.
- Van Dyk, J. (2000).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A Classroom Journey*. 김성수 역 (2003).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Ivp.
- Volf, M. (2013).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김명윤 역 (2014).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 Wolterstorff, N. (2010). *Art in Action*. 신국원 역 (2010). 『행동하는 예술』. 서울: Ivp.
- _____ . (2004). *Educating for Shalom*. 신영순·이민경·이현민 역 (2014). 『살롬을 위한 교육』. 서울: SFC.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5046&cid=46720&categoryId=46827>. (검색 2016.10.13)
- https://en.wikipedia.org/wiki/Leaf_by_Niggle. (검색일 2016.7.19)